

힘겨운 세밑 한파에도 사랑 온도는 뜨겁다

지역 대부분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최악의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이지만 기업과 시·도민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희망 2012 나눔 캠페인'이 기업과 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모금 운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다양한 기관과 경제·종교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을 22억원(전년실적 20억4500만원 대비 8% 증가)으로 정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

광주·전남 '희망 나눔 캠페인' 열흘만에 2억 넘어

80억 모금 목표 ... 기업·소액기부 참여 늘어 '순조'

장 최현주)는 11일까지 1억380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모금에 참여한 라인건설이 1억원을 기부했으며, 1만~5만원 소액기부자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성만)에도 초반부

터 온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번 목표액은 58억으로 지난해의 51억8000만원보다 12%높게 잡았다.

이날까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8000여만원이 모아졌다. 지난해 같은 시기 4300만원에 비해 40%가

늘어난 액수다. 남화토건(주)이 2000만원을 비롯해 순천시가 1100만원을 냈고, 농협전남지역본부가 5000만원 기부를 약속했다. 소액기부자들의 성금도 점차 늘어나 온기가 더해지고 있다.

황후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전남지회 사무처장은 "힘든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 도와야한다는 생각을 더 가져야 한다"며 "뜻있는 고액기부자와 기업 참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문·방송사 등 언론기관과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랑의 계좌'를 통해서도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ARS 060-700-121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구세군 자선냄비 등장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 설치된 구세군 냄비에 어린이들이 성금을 넣고 있다. 광주 구세군교회는 이날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종식을 가졌으며, 모금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취객에 먹살잡히고 욕설·폭행 ... 여성기사는 성희롱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수난의 계절'

콜 제한·퇴출될까 신고도 못해

#대리운전을 하는 박모(47)씨는 지난 7일 밤 황당한 일을 당했다. 대리운전을 신청한 회사원 김모(41)씨에게 주차를 잘못했다며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목격자에 도착하자 박씨는 김씨에게 먹살을 잡혔고 일방적으로 맞아야만 했다.

#투압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최모(42)씨는 새벽 3시에 만취한 50대 주부에게 "남의 차 기를 함부로 맡아"며 폭행당했다. 화를 참지 못한 최씨는 이 주부와 몸싸움까지 했고 결국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 가야 했다.

불경기 여파 속에 '먹고 살기 위해' 대리운전에 뛰어들어 가장들이 취객들에게 잇따라 수난을 당하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업체에는 30~40대만이 아니라 생계나 노후 대책으로 나선 50~60대까지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운전자들은 '올해 겨자

먹기'로 취객들의 부당한 대우까지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달 들어서만 20여건의 대리운전기사 관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는 법에서 인정하는 버스기사와 같은 공용운전자라 아니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쌍방으로 경찰에 넘겨질 경우 벌금에, 하루 일당까지 고스란히 날아가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업체들도 이미지를 고려해 영업 중 사고를 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풀을 제한하거나 심한 경우 퇴출시키면서 대리운전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김모(51)씨는 "수입이 줄면서 투압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걸렸하면 반말에 욕설을 하는

고객들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며 "마지 자신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45)씨는 "요즘 가뜰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설령 피해를 당하더라도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대리기사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범죄도 늘고 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박모(여·39)씨는 "취객 중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치근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면 울라 눈물이 난다"며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가스총까지 지니고 다닌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만 30여개의 대리운전업체가 있으며 업체마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500여명까지 25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종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대거 적발

광주시, 한 달 275건

대형사고를 불러오는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단속에 나섰지만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지난 한달 동안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한 화물자동차

272건과 화물자동차 허가기준 위반 2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 등 모두 2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주차 96건에 대해 모두 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허가기준 위반 1건에 대해 15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78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와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슴으로 낳은 또 하나의 가족'

임양홍보회 광주지부 송년 모임, 정보 나누고 장기자랑

눈발이 날리고 하루종일 바람이 강했던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소재 동 대한사회복지협의회 광주지부.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는 이곳에 잔치날인양 아이들이 북적였다. 아이들은 마치 외갓집을 찾은 것처럼 떠돌아다녔다. 그 시간 보호소 한 칸 강당에서는 30여명의 어른들이 진지하게 모임을 갖고 있었다.

한국임양홍보회가 연 2011년 임양가족 송년모임의 모습이었다. 한해를 결산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이번 모임은 특별했다. 새로 임양가족이 된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공개임양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가족끼리 장기자랑도 이어졌다.

임양부모들이 모여 서로 경험을 나누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임양가족모임이 늘고 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은 광주·전남에만도 3곳. 임양 자체를 쉬쉬하던 때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들 모임은 임양부모들에게는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아이들에게는 동료의식과 가족애를 돈독히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1999년 12월 열 두 가정의 모여 모임을 시작한 한국임양홍보회 광주지부 임양가족모임은 두 달



한국임양홍보회 광주지부 회원들이 지난 10일 '2011 임양가족 송년모임'을 갖고 서로의 훈훈한 정을 확인했다.

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꾸준히 30여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10년이 넘게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참가자들은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회원들이 직접 외국의 자료를 번역해 올리는 등 임양에 관한 다양한 자료도 공유하고 있다.

7개월 전 하진이(2살)를 임양해 모임의 새 가족이 된 김연숙(여·39)씨는 "처음 부모가 돼 어려움이 많았는데 모임에 참석해 선배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열심히 참석해 임양에 대한 마음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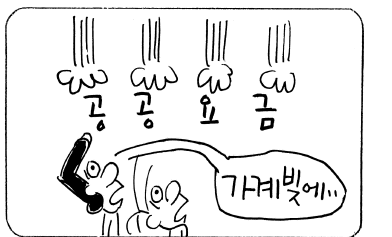
듬고, 좋은 정보도 얻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한국임양홍보회 이사는 "임양가족 모임은 임양부모나 아이들 모두에게 심적 고통을 극복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유익한 자조모임이다"며 "공개임양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와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 나주 이화영아원 등을 통해 매년 250여 가족에 국내임양이 이뤄지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57) 김장두



영암서 연탄가스 중독

아내 숨지고 남편 중태

11일 새벽 5시 35분께 영암군 신북면 김모(45)씨 집에서 김씨 부부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이들 부부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 이모(34)씨는 숨지고 김씨는 중태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경찰, 연말연시 방법 강화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새해 1월까지 특별방범 행사 활동을 펼친다. 광주·전남경찰은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등 범죄 취약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강·절도 등 서민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과 행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간에는 기동대, 방범순찰중대를 주태가, 아파트 단지, 취약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현금 취급업소, 여성 운영업소 주변과 연계해 순찰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원룸 등 후미진 골목길도 집중 순찰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윤현식기자 chadod@kwangju.co.kr

칼로 물레기? ~흥기 들고 부부싸움

○~부부싸움도 중 화근에 들었던 흥기로 남편에게 상처를 입힌 50대 주부가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주부 김모(58)씨는 지난 10일 밤 8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생촌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흥기로 남편 정모(64)씨의 복부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남편과 부부싸움 중 내가 들고있던 흥기에 남편이 달려들어 찔린 것이다"라며 상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출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12월 19일